

커피자판기만 있나? 녹차자판기도 있다

하동녹차연구소, 액상녹차자판기 보급



온음료자판기는 그동안 커피 일색이었다. 국산차 판매도 일부 있지만 낮은 품질수준과 위생문제로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기는 역부족이었다. 마치 커피자판기만 존재하는 것 같은 분위기. 그러나 어디 마실 만한 차가 커피만 있으랴? 홍차, 녹차 같은 대중성 높은 차들도 있다. 과거만 해도 국내에서는 이들 차를 자판기로 판매하기 위한 도전이 없었다. 웰빙 차 시장이 고객 선호도 증가와 함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도 대응을 못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녹차를 판매하는 자판기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하동녹차연구소가 하동녹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선보인 액상녹차자판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판기 판매를 위해 액상녹차 개발

과연 녹차를 자판기로 어떻게 팔 수 있을까? 지금까지 녹차자판기가 개발 상품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이었다. 주로 티백이나 분말로 많이 보급이 된 녹차를 자판기에 적용해 판다는 것은 기술개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상용가치도 낮았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게 액상차이다. 하동녹차연구소는 자판기로 섭취하기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 하동녹차농축액을 개발하게 되었다. 분말형 녹차가 미세한 입자 탓에 자판기용으로는 부적절하고, 특히 여름에는 입자가 잘 굳어 맛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만든 것이다. '귀하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이 제품은 녹차 특유의 맛과 향의 손실을 최소화 줄이기 위해 가향된 가루녹차를 사용했다. 비타민 C와 천연보존료 등을 사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높였다. 자판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우치를 이용하여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액상전환기를 기존 자판기에 부착해 녹차 판매

자판기의 상품화는 액상전환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기존 자판기에 부품처럼 설치를 해 분말이 아닌 액상재료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이다. 액상전환기는 자판기의 재료통 역할을 한다. 액상전환기는 솔레노이드펌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자판기의 재료모터 전기신호(DC)를 받아 AC펌프를 구동시키기 위해 펄스폭변조 PCB가 내장되어 있다. 어느 자판기에도 설치가 가능해 기존 자판기를 손쉽게 녹차자판기로 전환을 할 수 있다. 액체로 되어 있는 녹차원료를 물과 일정한 비율로 섞어 준다.

(주)티웰(舊, 서화전자)에서 개발된 이 장치는 대형 온음료자판기 내부에 설치하거나 미니 커피자판기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 기존자판기에 설치하여 냉음료로 전환하는 장치인 쿨샤를 같이 설치하게 되면 냉·온 녹차자판기가 되어 여름철에도 시원한 냉녹차를 음용할 수 있다.

부드럽고 신선한 맛이 좋은 평가를 받아

하동녹차연구소의 녹차자판기 보급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다. 기존 액상전환기를 제품 상단에 장착한 미니 녹차자판기는 2000대 정도가 보급되었다. 완제품(자판기에 액상 전환기가 내장)으로는 150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다. 미니 녹차자판기의 자판기 본체는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동구의 DG-700M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



녹차자판기의 로케이션 설치는 전국 (주)티웰 설치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품은 주로 약국, 식당, 당구장, 병원 등에 설치가 되고 있다. 가장 운영 효율이 좋은 로케이션은 약국이다.

액상 녹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액상 녹차는 티백녹차의 짙은 맛이 없고 부드러워 녹차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신선하고 맛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녹차자판기의 대중화를 위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티엘과 더불어 녹차는 물론 다양한 액상재료를 적용시킬 서비스기기 전개도 계획하고 있다.



커피 일색의 온음료자판기 시장에 있어 녹차자판기가 얼마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하동녹차 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연구소사업으로 2005년에 지정되어 2007년 10월 준공이 되었다. 하동녹차연구소는 녹차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설립되어 활발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요구하는 특화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연구산업 및 전략산업으로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